진실을 경험하라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069호 1판 (음력 7월 21일) 2015년 9월 3일 목요일

광주도시철도2호선 착공 1년 이상 연기

사업비 늘어 타당성 재조사 우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시기가 애초 계획보다 최소 1년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심도 또는 모노레일 등 지하철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른길 보존 문제와 사업비 초과 문제 등이 터져나오면서 윤장현 시장 재임 기간 중 착공이 불투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 김민종(광산 4) 의원은 2일 임시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용역사에 확인한 결과 기본설계가 95%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됐으며, 이미 건설 예상금액이 정부 승인액의 15.4%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과한 금액이 3000억원~4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통상 기본 설계 과정에서 승인 받은 총공사비의 10%가 넘으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문범수 광주도시철도 건설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애초 계획인 2016년 말 착공은 불가능하다"면서 "빨라도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만약 재조사를 받으면 착공시기는 수년간 더 늦춰지게 된다.

광주시는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전임 시장 때 건설계획이 확정된 도시철도 2호선을 재검토하면서 6개월 이상 지연했다.

이후에는 저심도, 지상고가 등 건설방식을 놓고 혼선을 빚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의 철도 노선의 푸른길 우회 압박이 높아지면서 이에따른 사업비 추가(500억원)가 불가피해 시의 입장이 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광주시는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해 지난 3월, 95% 진행된 기본설계를 중단하고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이에따라 올 연말까지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 3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실시설계(1년 6개월 소요)를 거쳐 이르면 내후년 말이나 2018년 초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일부 구간을 노면이나 지상고가 구간을 확대해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

한·중 6번째 정상회담

朴 "북핵 역할" 習 "최상 우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최근 북한의 도발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했으며, 취임 이후 6번째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관련기사 3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14분 넘겨 34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 종료 후 곧바로 1시간4분간 특별오찬을 함께하는 등 약 1시간 40분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양국 현안을 주제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

회담 후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날 9·19 공동성명 및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한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향후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 정상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한중일 3국 협력방안과 관련,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를 포함한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및 8·25 남북합의에 따른 한반도 긴장해소와 관련, "이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중 양국 간에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역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오늘날 박 대통령과 저의 협력으로 현재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의 우호 관계로 발전했다"며 "현재 한중 양국은 정치·경제·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지지 덕분에 한중 양국은 부분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과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시 주석은 "앞으로 한중 양국은 세계 평화 발전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화수도 '아트광주'

▶관련기사 2·16면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아트광주15'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돌며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번 아트페어는 오는 6일까지이며 200만원대 저렴한 작품 등도 대거 출품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문화전당 개관 D-1…오늘 전야제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5·18광장…'발모뎀' 행사

김종덕 문화부장관 참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4일)을 기념해 열리는 전야제가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치러진다. 관객들이 춤을 배워 군무를 즐기는 이색행사도 마련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아시아문화전당 개방축제'를 3일 오후 5시50분부터 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개최한다. 행사에는 김종덕 문화부장관이 참석한다.

광주의 예술가, 단체는 문화전당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재능기부로 축하공연을 펼친다. 그랜드오페라단, 앙상블 92.5mhz,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 재즈 피아니스트 강윤숙씨 등이 출연한다.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카펠라 그룹 '더 프레젠트'(The Present)와 혼성 5인조 팝·재즈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Zenith)는 하모니로 축제의 밤을 수놓는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참여 관객 모두가 군무를 펼치는 '발모뎀(Bal Moderne)'으로, 관객들이 안무를 함께 배우면서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고 춤을 즐기는 무도회다. 세계적인 안무가로 평가받는 안나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 빔 반더키부스씨 등이 현대무용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

행사에는 먹을거리, 볼거리도 풍성하다. '아시아 차(茶)문화 교류전', 국악그룹 '얼쑤'의 무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레이저 아트쇼'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축제의 밤을 꾸민다. 아시아 차문화 교류전에서는 한국·중국·일본·대만 4국 다도인들이 자국의 차와 다식을 소개한다.

한편, 문화전당측은 3일 오전 문화전당 개관을 위해 10여년 동안 문화전당 건립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림막을 철거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수시모집 062)605-1114